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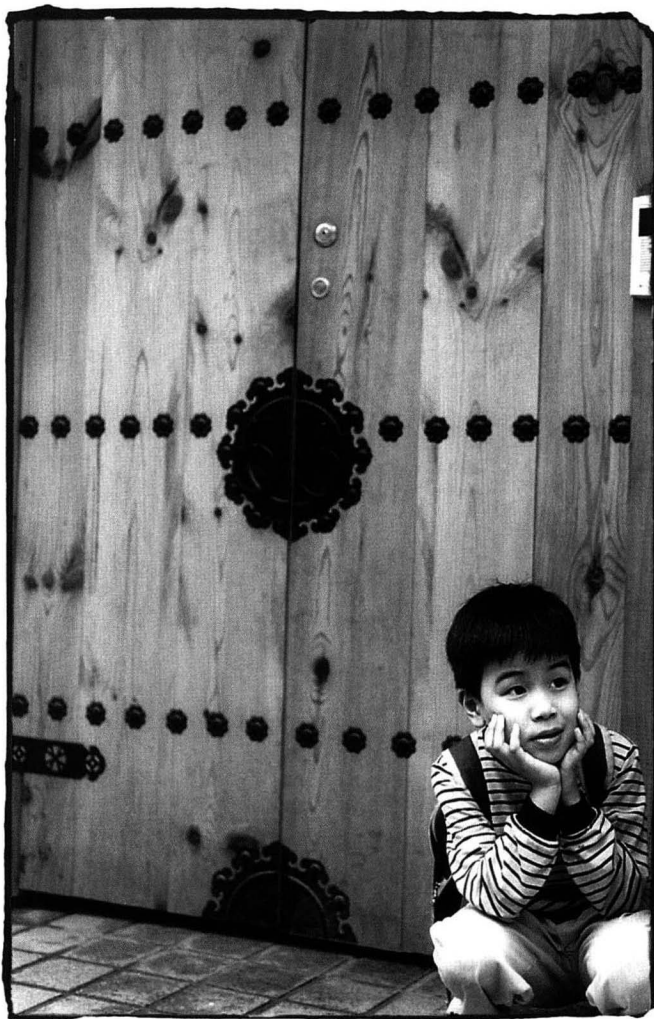
통과체의 通過 蔡條의 公事

골목길

그곳에서 주위 풀린

몇 개의 삽화

나를 키운 건 8할이 골목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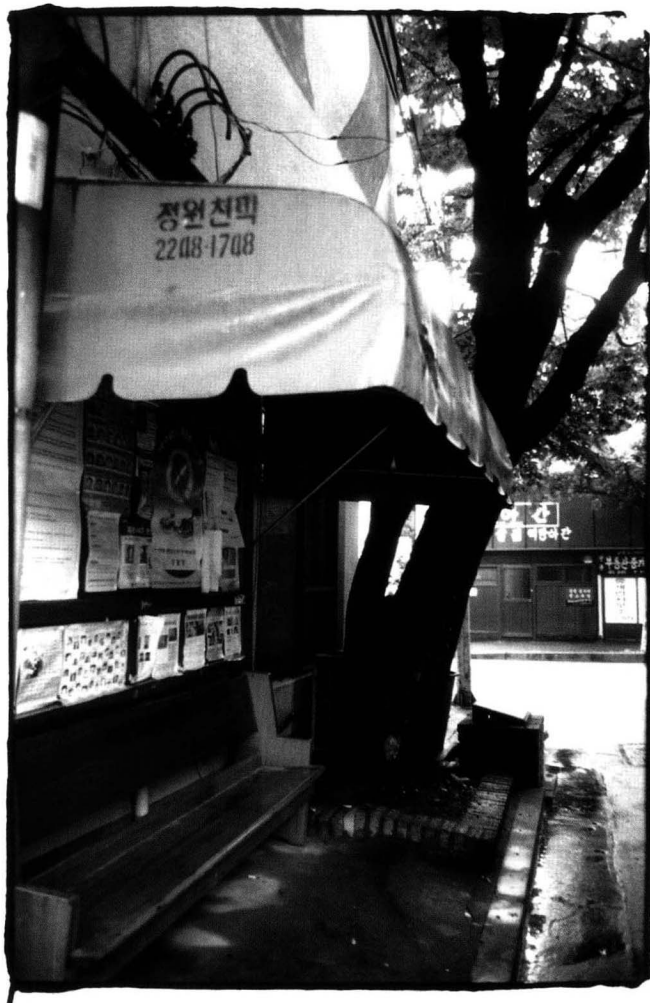
뒷마루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적막했다. 대추나무 아래 삼천리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지만, 매끈한 안장을 몇 번 쓰다듬거나 했을 뿐 그것을 몰고 골목길을 내달리지는 못했다. 반쯤 열린 저 대문, 금방이라도 누군가 기척을 내고 들어올 것 같은 몹쓸 대문이라니. 막 피기 시작한 화단의 맨드라미 대궁을 무심히 꺾던 나는 등 뒤를 후려칠 누군가의 뒷매를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기실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었으니... 막다른 골목집에 살았던 나는 그런 아이였다.

골목길의 집들은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다. 번지수를 찾으려 골목길 초입에 선 낯선 사람만이 골목길을 경계할 뿐이다. 삼삼오오 모여 사방치기며 구슬치기를 하던 친구들이 제 집으로 사라지면, 나는 어김없이 골목길을 서성거렸다. 나갈 길을 찾지 못한 바람이 루핑지붕 위를 오가며 웅웅, 울어댔지만, 아무려나 나는 괜찮았다. 경계警戒 혹은 경계境界 없이 대문을 열어두고 나를 기다리던 집들은 많았으니까. 운이 좋은 날엔 경, 하고 짓지 않는 개를 품어볼 수도 있었으니까. “어린 시절 나를 데리고 다니며 놀던 그 골목길, 하루의 절반 이상을 어머니 대신에 나를 키운 그 골목길”이라는 안도현 시인의 문장을 읽었을 때, 20년 뒤쪽의 나는 아뻘사,

낮게 신음했다. “나를 키운 골목길”이라는 문장을 선수 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골목길이 비단 나만 품어주었던 것이 아니라 상실감 때문이기도 했다. “세발자전거 페달 위에 발을 올려놓으면서 나는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처음으로 알기 시작했을 것이다”라는 안도현 시인의 문장에 기댄다면, 대문이 열린 골목길의 집들을 겁 없이 드나들면서 나는 내가 기다릴 것과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처음으로 알기 시작했을 것이다. 지독하게 때 이른, 그리고 뼈아픈 성찰이었다.



그 골목길을 빠져 나온다



두어 뺨뺨 키가 자란 나는 더 이상 대문이 열린 골목길의 집들을 들어서지 않았다. 반쯤 열린 문이 아니더라도 담 너머 그 집의 세간쯤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었다. 간혹 마음이 끌려 대문을 들어설라치면, 집은 낮선 공기로 걸음을 가로막았다. 품어 줄 만한 나이도 지났으니,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자전거 두 대도 간신히 비켜가야 할 나성여관 앞의 좁은 골목은 어느 쪽으로도 통해 있었다. (...) 오른쪽으로 가면 미로 같은 골목길을 꾸불꾸불 헤매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해도 계단 없이 곧장 서대문쪽 버스정류소로 갈 수 있었다.”

양귀자는 소설 《희망》에서 통과제의적 의미의 골목길을 보여준다. 주인공 ‘우연’의 생은 ‘미로 같은 골목길’에 다름 아니다. 삼수생이라는 골치 아픈 신분도 그렇거니와, 운동권 형과 외박을 일삼는 누나는 ‘우연’을 꾸불꾸불 헤매게 한다. 그러나 “때로는 느닷없이 구정물을 뒤집어쓸 우려도 있고 낮게 뽑아놓은 연통에서 스며나오는 지독한 연탄가스로 숨쉬기가 어렵긴 해도 그 길이 좋았다”는 ‘우연’의 고백처럼, 골목길은 생의 희망을 쥐어주기도 한다.

골목길에 놓인 나는 막다른 길이 어디인지, 큰 길로 나가는 지름길이 어디인지 재빨리 터득했다. 설령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해도 돌아서면 그뻘임을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다. 모퉁이로 사라지던 사람을 쫓던 누군기는 미련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음을 깨닫기도 했을 테다. 빈 골목길을 울리던 발짝 소리는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 이렇듯 생을 건너는 법을 깨우쳐 준 골목길에서 나는 조숙한, 더는 조숙함을 숨길 줄도 아는 아이가 되었다.

《희망》의 끝에서 ‘우연’은 전신주에 붙은 ‘생산직 남녀사원 ○○구함’이란 구인광고를 여겨본다. 골목길에 자리한 제 집 나성여관에서 삼수생이 아닌 당당한 직업인의 체비를 하고 ‘우연’은 떠나는 것이다. 구인광고는 골목길이 ‘우연’에게 준 ‘희망’에 다름 아니다. 물론 나 역시 ‘우연’처럼 골목길 혹은 생의 골목길을 그렇게 떠났다. 어른이라고 불려도 부끄럽지 않을 때였다.

없는 골목길, 남 는 단 상

그 많던 골목길은 어디로 다 사라졌을까. 연립주택 사이의 길, 아파트 단지 사이의 길, 골목길이라 할 수 있을까. 도처에 잠긴 문은 사람을 품지 못하고, 어디로도 쉽게 이어지는 길에서 사색이란 있을 수 없다.

◎ 골목길에 놓인 책들

《내 시대의 초상》중 단편 <샘이 깊은 물>	이윤기 지음 문학과지성사 204쪽 값 8,000원
《희망》(전2권)	양귀자 지음 살림 각권 300쪽 내외 각권 값 7,500원
《내 마음 속 사진첩에서 꺼낸 이 한 장의 사진》중 안도현 편	공선옥 외 지음 샘터 228쪽 값 9,800원
《눈사람 속의 검은 향아리》중 단편 <눈사람 속의 검은 향아리>	김소진 지음 강 386쪽 값 7,000원
《막다른 골목집 친구》	황선미 지음 두산동아 102쪽 값 6,000원
《골목안 풍경 30년》	김기찬 사진 눈빛 198쪽 값 38,000원
《골목 하나를 사이로》	최영숙 지음 창비 152쪽 값 4,000원

골목길이 그리운 시절, 이윤기는 소설 <샘이 깊은 물>에서 떠나온 골목길을 이렇게 떠올린다. 그리고 골목길 끝에 숨은 '새미 할매'에 대한 전설을 조심스레 꺼내놓는다.

“경사진 오르막길이었어도 뛰노는 아이들로 사철 붐볐었다. 그 비좁은 골목에서도 아이들은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랬다. 장성한 뒤 다시 그 골목을 찾은 아이들은, 아, 이 비좁은 골목을 우리는 어떻게 운동장처럼 썼던 것일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을 터이다. (...) 키 작은 관목들이 밀생해 있어 멀리서 보면 다리 벌리고 누운 여자의 사타구니 같은 곳, '할매 새미'는 거기에 있었다.”

샘가에서 물 한 바가지 떠 올렸다가 다시 찾겠노라는 임금의 말에 사무쳐 평생을 혼인도 하지 않고 샘을 지키는 여인. 폭설로 쌓인 눈이 녹자 샘물과 함께 얼어 있던 여인... 미혹의 전설이 깃든 삼청동 '가동골목길'은 못 되겠지만, 소설 속의 '나'처럼 떠나온 골목길을 찾는다면, 어미 같은 골목길이 당신을 반길 것이다. 행여 그 골목길이 좁게 느껴져도 고개를 갸웃거리지는 말 일. 골목길 안에서 대문이 열린 집을 기웃거리던 아이, 공장 일에도 희망을 걸고 떠날 채비를 하는 삼수생 '우연'이 다시 골목길에 선 당신이다. 늙어 몸피가 줄어드는 부모처럼, 당신을 품어 키운 골목길은 조금쯤



작아졌을 뿐이다. 골목길로 들어선 당신이 할 일이란, '할매 새미'의 전설 못지않은 당신의 추억이나 전설을 채집하는 일이다. 골목길은 다 괜찮다. 사금파리로 박힌 것일지라도 욕심 없이 당신에게 내어줄 것이다.

골목길을 걷는다. 여전히 반쯤 대문이 열린 집이 있고, 여전히 막다른 길이 있고, 여전히 모퉁이로 사라지는 누군가가 있고, 여전히 전봇대에 구인광고가 붙어 있는, 나를 품고 나를 떠나보낸 통과제의의 공간, 골목길을 걷는다. **☞**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